전략리뷰

Reviews on Views and Insights

2021-3호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미국과 유럽의 동상이몽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미국과 유럽의 동상이몽

피에르 모르코스(Pierre Morcos) CSIS 방문연구원과 레이첼 엘리휴스(Rachel Ellehuus)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
CSIS 기고 / 2021. 2.23



≡ Sections Search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Subscribe Sign In

CRITICAL QUESTIONS SHARE

WRITTEN BY

Pierre Morcos
Visiting Fellow, Europe, Russia, and Eurasia Program

Rachel Ellehuus
Deputy Director, Europe, Russia, and Eurasia Program

Is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Back on Track? Lessons from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February 23, 2021

Every year,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is the must-attend event for the transatlantic community and beyond. This year, the conference had to deal with the current health constraints, organizing a special virtual edition focused on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which included the participation of President Joe Biden and his French, German, and British (E3) counterparts. Entitled "Beyond Westlessness: Renewing Transatlantic Cooperation, Meeting Global Challenges," this timely event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the temperature of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at the outset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Q1: What was the main message imparted by President Biden and European Leaders?

A1: President Biden's first and main message was to reassure Europ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back." Specifically, he articulated the United States' unwavering commitment to NATO and its collective defense commitment and to multilateralism. His words in this regard could not have been stronger: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the strong foundation on which our collective security and our shared prosperity are built. The partnership betwe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s, and must remain, the cornerstone of all that we hope to

"미국과 EU는 뮌헨안보회의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서양 동맹과 다자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나토(NATO)와 EU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다자주의 복귀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동 의제화'를 촉구했으나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을 확립'하고 중국의 '경제적 남용과 강압'을 견제하기 위한 '동일한 기준'을 주장하였으나,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미국의 대서양 동맹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뮌헨안보회의 특별화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EU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동맹과 협력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 이에, 이른 시일 내에 '공동 의제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 제시

윌리엄 글루크로프트(William Noah Glucroft) 뉴스 앵커 및 리포터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 기고 / 2021. 2.18


Made for minds.

TOP STORIES MEDIA CENTER TV RADIO LEARN GERMAN

GERMANY CORONAVIRUS WORLD BUSINESS SCIENCE ENVIRONMENT CULTURE

GERMANY

Munich Security Conference brings trans-Atlantic's Fantastic Four back together

Donald Trump's four years as US president shook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On Friday,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brings together Biden, Merkel, Macron and Johnson for an event that could help to rebuild ties.

"대서양 동맹 협력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 미국과 EU의 지정학적 전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갈등 위험이 늘 있다. 이는 EU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EU 회원국이 항상 공동의 정책 목표나 방법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독일의 노드스트림2 구상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무역과 5G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더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동맹 복원에는 국내정치 요인도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어서 중간선거가 있는 2022년까지는 국정 운영이 순조로울 것이나 아직 내각 인선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하다. 독일은 올해 말 물러나는 메르켈 총리 이후 포스트 메르켈 체제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정치인 도전자를 상대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영구적인 안보 파트너임을 유럽 동맹국들에 증명해야 하지만, 또한 유럽이 자국의 방위 및 글로벌 문제에 더 많은 책임을 기꺼이 떠안기를 원한다."

☞ 지정학적 인식, 전략적 이익의 차이로 미국과 EU, EU 내 갈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국내정치적 요인이 외교정책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 이는 미국의 대서양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하는 미국은 글로벌 문제에 단독보다는 동맹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결국 EU의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와 국제 행위자로서 책임 확대가 불가피함을 역설

셰인 워드(Shane Ward) OWP 미국 지부 특파원
세계평화기구(The Organization For World Peace) 기고 / 2021. 2.20


OWP
The Organization for World Peace
Home Our Work Crisis Index About Us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 Messages Of Hope From The 2021 Munich Security Conference

Shane Ward February 20, 2021

Several of the world's most senior decision-makers came together on February 19th for a special edition of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each sharing reflections on challenges and hope for a new transatlantic relationship. For the first time in its long history, a sitting U.S. president attended the virtual discussion as Joe Biden spoke passionately and optimistically about renewed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problems facing the West today, prompting relief from his European counterparts after four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gathering, titled "Beyond Westlessness: Renewing Transatlantic Cooperation, Meeting Global Challenges," was the special prelude to the 2021 iteration of the annual conference, which has been postponed to later this year because of the pandemic.

"전 세계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전염병부터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서양 동맹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21세기 초석(cornerstone) 이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전염병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고립주의 선택으로 인한 폐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큰 도전들은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 세력을 다루는 것 역시 대서양 동맹의 핵심 의제이지만 이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추동하는 데 장애물도 있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전 세계는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글로벌 안보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 글로벌 도전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강경한 접근과 대화의 균형 사이에 미국과 유럽 간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커지만,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를 바탕으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

o 뮌헨안보정상회의 특별화상회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두 축인 미국과 EU 관계가 달라진 안보환경에 트럼프 이전으로 완전히 복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이었음

o 동 회의를 통해 미국과 EU의 시각을 분석한 양측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 복귀로 공통 가치에 기반한 동맹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 차이로 인해 긴장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화의 필요성을 제언

o 미국적 시각은 대서양 동맹의 복원에 초점을 둔 복고적 관점이나, EU의 시각은 유럽 이익의 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공동 의제화 작업에서도 미·EU 간 균열이 예상되는 한편, 대외정책에서 국내정치 요인의 영향이 커지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

o 중립적 시각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글로벌 협력을 추동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글로벌 안보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단결을 강조

o 요컨대, 바이든의 리더십이 동맹인 EU와의 관계에서도 시험대에 오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EU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공동 의제 제안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대서양 동맹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

o 뮌헨안보회의를 통해 본 미-EU 간 관계는 문자 그대로 '동상이몽' 혹은 경로 종속형의 '오월동주'라고 볼 수 있음. 대서양을 둘러싼 양측의 관계가 전개될 방향은 아직 완전한 '이격(離隔)'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공동의제화', '동일한 기준',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해법' 등은 향후 주목해봐야 할 담론(개념)들로 이 개념들이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전면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정리: 김경숙 신안보전략연구실)